

# 조중환의 변안소설과 열병의 상상력

— 장티푸스의 변주와 형상화를 중심으로\*

박 성 호\*\*

## 요약

장티푸스는 20세기 중반까지 맹위를 떨쳤던 감염병으로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유행한 바 있다. 이미 19세기 말부터 위생과 방역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이루어졌으며, 대중들에게도 주요한 감염병 가운데 하나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문학 작품에서는 장티푸스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신경쇠약이 결핵, 천연두 등과 달리 장티푸스는 1910년대 초반까지도 거의 소설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조중환의 변안소설인 「쌍옥루」나 「비봉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역시 장티푸스를 병명을 직접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조중환의 변안소설에서 장티푸스는 감염병의 측면보다는 불명열(不明熱)의 일환으로 등장한다. 감염병임을 추론할 수 있는 서술이 작품에서 등장하기는 해도 발병의 중심에는 작중인물의 죄책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강하게 작동한다. 이는 19세기 영미소설이 채택한 neural fever와도 연결된 것으로, 열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작중의 갈등을 설명하거나 이를 해소하는 계기를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열병을 중심으로 하여 근대이료를 소설 속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혈액검사와 혈청주사, 체온 측정을 중심으로 한 진단과 치료는 모두 의사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작중인물의 병을 치료하는 것 역시 의사의 역할로 분리된다. 같은 시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신경쇠약이 의료와는 무관하게 작중인물 간의 갈등 해소를 통해 치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4058286)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티푸스를 중심으로 한 열병의 상상력은 소설에서의 근대의료의 구체화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서는 열병을 중심으로 결핵이나 신경쇠약과 같은 여타의 질병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세기 초 문학에서 질병을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데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장티푸스, 열병, 조중환, 번안소설, 근대의료, 감염병, 쌍옥루, 비봉담

## 목차

1. 들어가며
2. 20세기 초 감염병으로서의 장티푸스와 소설의 관계
3. 장티푸스의 번안과 그 의미 - 장감에서 신경열병까지
  - 1) 열(熱)을 중심으로 한 병명의 번안과 혼재
  - 2) 재번안된 열병과 신경쇠약의 연결
4. 장티푸스-열병의 상상력과 소설 속 근대의료의 구체화
5. 정리하며

## 1. 들어가며

20세기 초의 신소설 및 번안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신소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병이 정신질환이기도 하려니와, 문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권보드래<sup>1)</sup>, 박성호<sup>2)</sup>, 박진영<sup>3)</sup>, 서연주<sup>4)</sup>, 송명진<sup>5)</sup> 등이 이러한 접근에서 이루

1) 권보드래, 「신소설의 성(性), 계급, 국가 - 여성 주인공에 있어 젠더와 정치성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2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12, 7-42면.

2) 박성호, 「신소설 속 여성인물의 정신질환 연구 - 화병(火病)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9, 한국언어문화기술확산연구소, 2020.5, 169-199면.

어진 성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반면 여타의 질병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일단 신소설이나 변안소설에서 등장하는 질병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까닭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직 근대의학에 근거한 병명의 세분화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탓에 어떤 질병인지를 추적하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 더 크다. 신소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질병을 포함한 의료 관련 개념들을 추적한 장근호·최규진의 연구<sup>6)</sup>에서도 신소설뿐만 아니라 1920~1930년대 소설까지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sup>7)</sup>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신소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질병들을 추적, 발견하여 분석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그 의미화의 양상을 파악하기보다는 단어 차원에서의 분류와 병명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소설의 등장 이후 작품에서 질병을 채용하는 양상은 점차 근대의료의 체계에 근거하여 질병을 세분화·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물론 상술한 것처럼 단순한 언급 차원에서 그치는 경우도 많았으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작중에서 일정한 맥락을 형성하면서 해당 질병의 일반적인 지식이나 의미와는 다른 영역을 확보하는 경우 또한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천연두나 결핵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3) 박진영, 「1910년대 변안소설과 '실패한 연애'의 시대 - 일제 조중환의 쌍옥루와 장한몽」,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8, 273-302면.

4) 서연주, 「신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광기」, 『여성문학연구』 3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4, 40-60면.

5) 송명진, 「이식된 '광기'와 소설적 형상화 - 191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2-4, 대중서사학회, 2016.11, 87-114면.

6) 장근호·최규진, 「신소설에 비친 개화기 의료의 모습」, 『역사연구』 35, 역사학연구소, 2018.12, 109-143면.

7) 장근호·최규진의 논문은 '신소설'과 '개화기'를 표제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인 연구는 1900~1930년대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대한제국기 및 식민지기 문학에 나타난 근대의료 관련 개념에 대한 연구라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축적된 상황이지만, 전자는 「구마검」과 같은 특정 소설을 중심으로 한 계몽 담론에 치우친 경향이 짙고, 후자는 1920년대 이후의 소설들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다소간 한계가 있다. 게다가 이런 몇몇 병들을 제외한다면 앞서 장근호·최규진의 연구에서 나타난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학 중심의 연구는 상당부분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러한 질병들 가운데에서도 20세기 초 맹위를 떨쳤던 장티푸스에 주목하고자 했다. 특히 조중환의 변안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장티푸스의 등장과 의미화 양상이 이 글에서 주목하는 바이다. 여러 신소설 및 변안소설 가운데 조중환의 소설을 택한 이유는 우선 저본과의 비교를 통해 소설 속에 등장한 질병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작중 인물의 증상이나 투병 과정 등에 대한 묘사 역시 비교적 상세하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이 장티푸스는 typhoid라는 근대의료의 맥락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열병’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의료와는 다른 독자적인 의미의 영역을 확보해나간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고 파악했다.

## 2. 20세기 초 감염병으로서의 장티푸스와 소설의 관계

장티푸스(Typhus abdominalis)는 살모넬라 타이피균(*Salmonella typhi*)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발열과 복통 등 신체 전반에 걸친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했을 때 감염을 일으키며, 별도의 치료를 거치지 않으면 3-4주에 걸쳐서 증상을 경과하게 된다.<sup>8)</sup>

장티푸스라는 명칭은 근대 초기 일본이 번역한 병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장티푸스와 typhoid fever는

---

8) 〈장티푸스〉, 서울대학교병원 N의학정보, 2023년 12월 10일 검색.

<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category=DIS&medid=AA000034>

별개의 질병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발진티푸스의 유사질환으로서의 열병을 가리키지만 이 둘은 종종 혼동되고는 했다. 그리스어 “typhos”는 ‘연기를 뜻하는데, 이 병에 걸리면 정신이 흐려지고 바보처럼 된다는 뜻에서 병명으로 사용되었으나 18세기 이전까지는 장티푸스와 발진티푸스를 감별할 능력이 없었기에 두 병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sup>9)</sup>

이런 정황은 한국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홍역이나 천연두, 학질(말라리아)과 달리 장티푸스는 온역(溫疫) 내지는 여역(癘疫)이라는 명칭 하에 디프테리아나 발진티푸스 등과 혼재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sup>10)</sup> 장티푸스나 발진티푸스는 전혀 다른 병원체와 감염 경로를 지닌 병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는 했던 까닭에 이처럼 단일한 범주 내에서 이해되기 십상이었다.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병원체의 발견과 더불어 장티푸스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1899년 8월 29일 관보에 게재된 「전염병 예방 규칙」의 제1조에서는 콜레라虎列刺, 이질赤痢, 디프테리아實布埵利亞, 발진티푸스發疹瘰扶私, 천연두痘瘡 등과 함께 ‘장티푸스腸瘰扶私’를 대표적인 감염병으로 규정했다.<sup>11)</sup> 이 규칙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예방과 격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 점만 보더라도 장티푸스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위생 차원에서의 대처법 등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널리 통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정희영, 「장티푸스의 몇 가지 문제」, 『인제의학』 5-2, 백중앙의료원, 1984.6. 133면.  
 10) 배대호, 「19세기 전후 사대부가의 감염병 양상과 대처 - 정원용의 『경산일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95, 조선시대사학회, 2020.12. 306면.  
 11) 「傳染病豫防規則」, 『官報』 1352, 1899.8.29. 원래 (장)티푸스에 대한 음차 표기는 (腸)瘰扶私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당 일자의 관보상에는 瘰扶私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용에 한해서는 원문의 표기를 따른다. 참고로 1879년 12월 27일 일본 내무부의 「읍면위생사무조례(町村衛生事務條項)」에서도 같은 표기를 쓴 사례가 발견되는 것을 보아 瘰扶私와 瘰扶私는 당시 종종 혼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安井広, 「E・ペノレツと發疹チフス」, 『日本医学雑誌』 28-3, 日本医学学会, 1982.7, 11면.

장티푸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언급되었던 ‘구레싱(크레졸)’의 광고 문안에서도 이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해당 문안에서는 약학박사 탄바 케 이조丹波敬三의 발명품이라는 소개와 더불어 호열자균(虎列刺菌)이나 장질부사균 등을 박멸하는 데 유효하다고 서술되어 있다.<sup>12)</sup> 장티푸스를 유발하는 것이 세균이며 이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감염병이 만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물론 이것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장티푸스의 병원체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제기되었던 광고는 아니다. 당대의 의약, 특히 매약(賣藥) 광고는 동시대의 소비자들에게 가장 이목을 끌 만한 요소들을 광고 문안으로 채택했을 뿐, 구체적인 효능을 검증하여 밝히는 방식은 아니었다. 1920년대의 ‘인단(仁丹)’이나 ‘가오루(カオール)’ 광고에서도 살균 효과를 강조하면서 장티푸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문안이 제시되곤 했지만, 실제로 이들 매약이 장티푸스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기보다는 장티푸스에 대한 대중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목적에 가까웠다.<sup>13)</sup>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장티푸스의 원인이 세균에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1910년대부터 대중 일반이 공유하던 감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장티푸스의 위험성에 경계와 해당 감염병에 대한 대응법 역시 1910년대 초반부터 점차 보급되고 있었다. 『매일신보』는 1912년 8월에 이틀에 걸쳐서 「腸窒扶斯」라는 제목으로 3면 최상단에 기사를 게재했는데, 여기에는 장티푸스의 원인이나 증상을 상세하게 서술하는가 하면, 그 대응책 역시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당시 『매일신보』의 편집체제를 생각해본다면<sup>14)</sup> 이 기사는 사실상 1면 최상단에 실

12) 「구레싱」, 『대한매일신보』, 1909.9.23.

13) 최규진, 『이 약 한번 잡쉬 봐 - 식민지 약 광고와 신체정치』, 서해문집, 2021, 194-197면.

14) 1912년 1월 『매일신보』는 체제 개편을 단행하는데, 이는 지면 확장과 더불어 기존의 언한문 단일체제를 벗어나 1, 2면은 언한문, 3, 4면은 언문으로 된 이중체제로 구성하는 것을 골

렸던 셈이다. 그만큼 장티푸스는 대중들에게도 익숙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관심을 환기하는 질병이었다.

이러한 관심은 장티푸스가 대한제국기는 물론이려니와 식민지기 내내 꾸준히 발생했던 급성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장티푸스는 한 해 발생하는 전염병의 4할을 차지할 정도였으며, 이로 인해 1920년대 중반부터는 장티푸스에 대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빈도 수 역시 다른 감염병보다 큰 편으로, 중두나 콜레라와는 달리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매년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을 정도였다.<sup>15)</sup> 그만큼 장티푸스는 식민지기 내내 맹위를 떨치면서 일상 속에 깊숙히 침투한 감염병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치명적인 감염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에서 장티푸스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1900년대의 소설에서까지만 해도 장티푸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감염병들은 당시 알려지기 시작한 근대적인 병명으로는 등장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역병(疫病) 내지는 괴질로 호명되는 것이 일반이었고, 그 묘사나 역할 역시 전통적인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천연두에 대한 대응을 주요 소재로 삼았던 이해조의 「구마검」과 같은 사례를 제외한다면, 1900년대 소설에서 장티푸스나 콜레라와 같은 감염병은 그다지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지 않았다.<sup>16)</sup>

다른 한편으로는 장티푸스의 증상이 문학 텍스트에서 활용되기에는 비교적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도 한몫 했을 것이다. 또다른 대표적인 감염병

자로 두고 있었다. 이는 기준에 별도로 발행되던 언론신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화인데, 『매일신보』 측에서는 이를 두고 비록 언론신문을 폐지하기는 하지만 대신 기준보다 오히려 언론 기사의 양과 폭은 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社告 - 本紙의 大擴張, 五號活字의 嚆矢, 諺文新聞의 合併」, 『매일신보』, 1912.3.1.

15) 백선례, 「식민지 시기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관한 의학적 논의의 전개」, 『연세의사학』 23-2,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2020.12, 64-65면.

16) 장근호·최규진, 앞의 논문, 130면.

중 하나인 결핵이 문학 텍스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지하다시피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나 붉은 입술, 연약한 용모 등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뛰어난 감수성의 상징으로써<sup>17)</sup> 낭만주의적 은유로 폭넓게 채용될 수 있었던 데 비한다면, 장티푸스처럼 복통이나 설사를 동반하는 감염병은 이러한 은유로 활용되기 쉽지 않을 터였다. 게다가 완만하게 진행되는 결핵이나 신경쇠약 등에 비해 단기간에 급격하게 발생, 유행하는 급성 감염병은 문학적인 은유를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티푸스는 결핵이나 신경쇠약과 같이 동시대의 소설에서 자주 등장했던 질병들과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연결고리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장티푸스뿐만 아니라 발진티푸스와 같이 명칭은 비슷하지만 계통은 전혀 다른 감염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이기도 했다. 바로 ‘열(熱)’의 존재가 그것이다.

### 3. 장티푸스의 변안과 그 의미 - 장감에서 신경열병까지

#### 1) 열(熱)을 중심으로 한 병명의 변안과 흔재

1900-1910년대의 신소설에서는 장티푸스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염병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해조의 『홍도화』 하권에서는 태희의 세 아들이 모두 ‘간기’라는 병에 걸려 죽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지만<sup>18)</sup> 그냥 병에 들었다는 서술만 있을 뿐 대부분은 병의 치료를 둘러싸고 태희와 시모가 갈등을 빚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금대」에서도 중심인물인 만득이가 평양에서 감염병으로 구몰(俱沒)한 여성을 구호하고 그녀와 백년가약을 맺기는 하나, 작중에서 서술된 질병이란 그저 ‘괴질’로만

---

17) 수잔 손탁, 『은유로서의 질병』, 이재원 역, 도서출판 이후, 2002, 49면.

18) 이해조, 「홍도화 하권」, 최원식 편, 『이해조 작품집』, 범우, 2022, 66-67면.

언급되었을 뿐이며<sup>19)</sup>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보통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감염병은 이해조의 「구마검」 및 「천중가질」에서의 천연두나 김우진의 「류화우」, 선우일의 「두견성」에 등장한 결핵 정도다.

장티푸스와 연결될 수 있는 감염병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조중환의 변안소설에서였다. 「쌍옥루」에서 정남이 앓은 병은 ‘장감(長感)’이라 언급되어 있다. 조중환은 이 장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남기지는 않았고, 그냥 열병(熱病)의 일종이라는 설명만 추가해두었다. 「쌍옥루」에 대한 현대어본을 편찬한 박진영 역시 색인에서 장감을 “유행성 감기로 열이 계속 나는 병”으로 정리해두고 있다.<sup>20)</sup> 신소설에서 나타나는 의료의 양상에 대한 용어 중심의 연구를 수행한 장근호·최규진 역시 전통의학에서 오래된 감기로 인한 증상을 칭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sup>21)</sup>

원래 장감 혹은 장감병(長感病)이란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서 언급한 것으로, 오한과 발열 및 한출(汗出)이 며칠씩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질환으로 일컬어진다.<sup>22)</sup> 보통은 외감(外感), 즉 감기의 연장선상에 놓인 병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한의학적 관점 하에서는 불명열(不明熱)이나 급성 A형 간염 등과 같은 다양한 질환과의 연계선상에서 접근하기도 한다.

다만 조중환은 장감을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적용하지는 않았다. 「쌍옥루」의 서술 중에는 정남의 장감이 감염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 있으며,<sup>23)</sup> 장감 치료의 권위자로서 정남을 치료해주는 서병삼 역시 “세

19) 이해조, 「탄금대」, 『한국신소설전집』 5, 을유문화사, 1968, 222면.

20) 박진영 편, 『쌍옥루』, 현실문화연구, 2007, 472면.

21) 장근호·최규진, 앞의 논문, 120면.

22) 김상진·장석현·정희재 외 2명, 「長感病으로 진단된 불명열 환자 치험 1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8-6, 한의병리학회, 2014.12, 683면.

23) “그새에 기성 읍늬에는, 맞춤 장감이라 흐는, 열병이 성형하여, 정남이가, 그곳 아히들과 가서 놀던 집에도, 장감으로, 신고흐는 사름이 잇섯스나, 그 유모는, 전연히 그런 줄을 아지 못 흐엿더라” 조중환, 「쌍옥루 중편」 37, 『매일신보』 1912.11.12.

균학의 권위자”<sup>24)</sup>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병삼은 자신이 발명한 혈청주사로 정남의 병을 치료하는데, 이 대목만 보더라도 조중환이 상술한 관점에서 장감이라는 병명을 채택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군다나 작중에서 정남의 병은 개성을 다녀온 며칠 후에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실제 장감이 지닌 맥락과는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장감의 치료법에 대한 정옥조와 의사 사이의 대화에서도 이 병이 ‘열병’의 일종이며, 다른 열병에 비해 대단히 치료하기 쉽다는 내용이 오간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남의 장감은 감기의 일종이라기보다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의 ‘열병’의 한 종류에 가깝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쌍옥루」의 저본인 「오노가쓰미(己が罪)」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저본에서 마사히로(正弘), 즉 정남의 병명을 진단한 의사는 그의 병명이 ‘장티푸스’임을 명확하게 언급<sup>25)</sup>하기 때문이다. 조중환이 ‘장감’이라고 표현한 병명은 전부 티푸스(瘧疾) 또는 장티푸스로 서술하고 있다.<sup>26)</sup> 「쌍옥루」의 서병삼에 대응되는 츠카구찌(塚口) 박사 역시 세균학의 권위자로서 장티푸스에 효험이 있는 혈청주사 요법을 개발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런 점들을 감안컨대 「쌍옥루」에서 정남의 병으로 언급된 ‘장감’은 사실상 장티푸스를 지목한 것으로 보아도 좋겠다.

「쌍옥루」 하편에서 정옥조가 얻은 병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이경자와

24) “성명은, 서병삼씨라고 일으는듯, 여러 히 전에, 동경에 류학하여, 의술을 연구하다가, 덕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삼 년 동안, 세균학(細菌學)을, 전문으로 연구하여서, 그곳에서, 박사의 칭호를, 얻어가지고 일전에 귀국하였는듯, 우리의 학계에서는, 그 중 고명하게, 아는 사람 이을시다” 조중환, 「쌍옥루 중편」 38, 『매일신보』, 1912.11.13.

25) “御令息が 今日までの 経過と, 御容體を 拜見しまするに, どうやら 腸窒扶斯らしく 思はれまするで” 菊池幽芳, 『己が罪 中編』, 春陽堂, 1902, 211面.

26) 후술하겠지만 사실 티푸스, 즉 발진티푸스와 장티푸스는 서로 전혀 다른 병이다. 그러나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둘은 혼재된 상태로 이해되거나 거론되는 일이 잦았고, 『오노가쓰미』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사히로의 병명은 티푸스와 장티푸스 사이를 오간다.

이혼한 후 인도와 서장(西藏) 등지를 유랑하며 다니다가 감염병에 걸려서 입원한다. 이혼 후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이경자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병든 정옥조와 재회하여 그를 성심껏 간호하게 된다. 이 또한 「쌍옥루」에서는 열병(熱病)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지만, 저본인 『오노가쓰미』에서는 “タイフハス熱”<sup>27)</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1899년 발간된 『영화회화작문활법(英和會話作文活法)』의 질병 관련 단어 목록 중 ‘タイフハス’에 대응하는 것은 Typhus, 즉 발진티푸스다.<sup>28)</sup> 그리고 Typhus와 별도로 Tiphoid fever<sup>29)</sup> 항목을 두고 이에 대해서는 ‘腸壑扶斯’로 번역했다. 이에 따른다면 정옥조의 병은 티푸스성 열병<sup>30)</sup>이다.

사실 정남의 장티푸스와 정옥조의 티푸스열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병이기는 하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18세기까지만 해도 장티푸스와 발진티푸스는 구분되기 어려웠고, 이후에도 혼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도 장티푸스나 티푸스열병임을 언명한 것은 저본인 『오노가쓰미』의 경우였고, 조중환의 「쌍옥루」에서는 아예 장감이나 열병으로 변안되었다는 점도 감안해야겠다.

조중환이 저본에서 직접 언급된 장질부사나 티푸스성 열병을 장감이나 열병으로 대체한 이유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보통 조중환은 저본에 최대한 충실하게 변안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병명에서도 크게 다르

27) “子爵は安南に入りて聞くも恐ろしきタイフハス熱に罹れりといふなら”, 菊池幽芳. 『己が罪後編』, 春陽堂, 1901, 210面.

28) 品川卯一 編, 『英和會話作文活法』, 昇栄堂, 1899, 47面.

29) typhoid fever의 오식일 것으로 추정된다.

30) 이는 병리학적으로는 정확한 병명이 아니다. 정옥조의 행적 등을 감안하면 발진티푸스일 가능성이 높지만, 주지하다시피 장티푸스와 발진티푸스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후대의 일이며, 증상만으로는 두 질병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본이든 변안본이든 병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두 질병을 구분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생각해야겠다. 일단 저본에서도 티푸스열(熱)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조중환 역시 열병으로만 변안하고 있는 바, 이 글에서는 티푸스성 열병이라는 임의의 명칭으로 부르도록 한다.

지 않아서 후술할 「비봉담」의 경우에도 저본에서 제시한 신경열병(神經熱病)을 그대로 가져왔을 정도였다.<sup>31)</sup> 상술했듯이 장티푸스가 당시 사람들에게 낯선 질병이 아니었던 만큼, 병명의 낯섦으로 인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추정컨대 장티푸스에 대한 당시의 인식이 소설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은 있었으리라고 본다. 후술하겠지만 식민통치의 맥락 내에서 야만의 표상으로 간주되던 장티푸스와 같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작중인물에 부과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대신 세균이나 감염과 같은 요소는 그대로 남겨두어 근대적인 의료체계와의 접점을 유지하는 한편, 병이 지닌 특질은 가급적 그대로 옮김으로써 해당 질병이 서사에 부과하는 의미는 보존하고자 했다.

이는 조중환이 집중적으로 묘사한 병의 증상이 ‘고열’이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병세 더욱 침중하야 (...) 스십도에 니르럿”<sup>32)</sup>던 정남이나 “열과 심하며, 정신이 착란하고, 신체가 쇠약”<sup>33)</sup>해진 정옥조 모두 고열로 인한 섬망이나 섬어라는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증상 묘사는 저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 증상에 대한 서술을 유지한 채로 병명만 번안했다는 점은 장티푸스보다는 ‘장감’이나 ‘열병’이 해당 증상을 부각시키기에는 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정남의 장티푸스는 고열과 섬어를 동반한다. 다만 여기서는 정남 자신의 발언은 드러나지 않으며, 그의 병증을 둘러싼 정옥조와 의사들의 대화가 중점적으로 제시된다. 정남의 열병은 여러 종류 중에서도 ‘장감’, 즉 전통적인 병명을 차용한 열병으로서의 장티푸스이기에 확진과 치료의 과

31) 「비봉담」은 작중 배경과 등장인물의 동선을 제외하고는 사건이나 인물의 상황 등은 직역에 가까운 수준으로 옮겼다. 이지훈, 「조중환의 『비봉담』 번안과 여행의 서사 형식」, 『한국근대문학연구』 18-1, 한국근대문학학회, 2017.4, 41-42면.

32) 조중환, 「쌍옥루 중편」 37, 『매일신보』, 1912.11.12.

33) 조중환, 「쌍옥루 하편」 49, 『매일신보』, 1913.2.4.

정은 세균을 검출하고 적절한 치료제를 투약하는 방식으로 귀결된다. 이 치료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경자의 과거 내연남임과 더불어 사생아에 대한 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의학박사’ 서병삼이다. 서병삼의 혈청주사를 통해 정남의 병은 치유되지만, 대신 서병삼에게 협박을 받게 되는 이경자가 다시금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정남의 장티푸스였다.

반면 작품 후반부에서 티푸스 열병에 감염된 정옥조의 섬망은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갑자기 병실을 뛰쳐나가려고 한다든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경자가 정옥조와 재회하는 순간에 그는 병원 침대에 묶인 채 의식이 혼란한 상태로 누워 있다. 게다가 그는 고열로 인해 반복적으로 섬어(讒語)를 발하는데, 이는 이경자와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보 부인…… 경조…… 아모리 햏야도, 그티가, 너게 오지 못햏겠다 햏는 말이오, 너가 다 잘못햏였소, 정말 너가 잘못햏얏스니식, 인제는, 나도 기심햏였소 (…)」<sup>34)</sup>

작중에서 정옥조는 사생아에 대한 이경자의 고백을 듣고 이혼을 선택한다. 이후 이경자는 속죄를 위해 간호사가 되는 길을 택하지만, 반대로 상심한 정옥조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방황하게 된다. 이혼 당시의 정옥조는 이경자와의 절연(絶緣)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취하지만, 막상 고열로 인한 섬어 속에서 이경자에 대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게 된다. 이처럼 정옥조의 티푸스성 열병은 그의 내면을 독자 앞에 드러내고 이경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34) 조중환, 「쌍옥루 하편」 48, 『매일신보』, 1913.2.2.

## 2) 재번안된 열병과 신경쇠약의 연접

「쌍옥루」에서 묘사된 장티푸스나 티푸스성 열병의 특징은 감염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동시대 소설의 정신질환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더 흡사한 것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조중환의 또다른 번안작 「비봉담」이다. 작중 중심인물인 박화순은 신경열병(神經熱病)이라는 특이한 질병을 앓는다. 저본인 『와라와노쓰미(妾の罪)』에도 神經病 혹은 神經熱病이라고만 표현된 것이 전부다. 작중 서술을 통해서 본다면 열병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쌍옥루」의 장감이나 열병과 상통하며, 병으로 인한 섬망이나 섬어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다만 “혹은 전일에 알던 병이 다시 발작되었나”<sup>35)</sup>와 같은 서술에서 드러나듯이 감염병에 관한 요소는 전무하고, 그보다는 박화순의 죄책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동한다.

신경열병에 대한 당시 국내에서의 기록을 발견하기란 어렵다. 다만 비슷한 시기의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용례가 종종 등장한다. 서구의 의학 관련 지식을 소개하는 『泰西三需弁』에서는 습한 날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로 콜레라나 이질, 폐렴 등과 더불어 신경열병을 거론하기도 했고,<sup>36)</sup> 1914년에 발간된 『근대평전총서 제2권: 도스토예프스키』에서 투르게네프나 벨린스키의 질책에 대해 “나는 신경의 상태가 좋지 않아 종종 신경열병에 시달린다”<sup>37)</sup>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자는 감염병의 일종으로 이해되었고, 후자는 신경쇠약과 유사한 맥락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보건대 신경열병은 특정한 질병을 지칭했다기보다는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통칭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35) 조중환, 「비봉담」 10, 『매일신보』, 1914.8.1.

36) 上野政人 訳, 『泰西三需弁』 上, 東京: 玉山堂, 1873, 3-4面.

37) “私は神經の具合が悪い、そして或る種の神經熱病に悩んで居る” 瀬戸義直, 『ドストエーフスキイ(近代評伝叢書; 第2巻)』, 中興館書店, 1914, 65面.

이러한 양상은 19세기 영미문학에서 등장하는 nervous fever와 유사한 것이었다. 심기증(hypochondriacs, 건강염려증), 섬망 등과 더불어 신경 계통에서의 열병 증상을 보이는 신경성 질환이 그것이다. 저본인 『와라와노쓰미(妾の罪)』 역시 19세기 영미권의 로맨스 소설에 대한 변안이었음을 감안한다면<sup>38)</sup> 신경열병이 이러한 nervous fever와 연결되어 있으리라고 추론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sup>39)</sup> 박화순이 신경열병으로 인해 겪는 환각은 그의 죄책감과 불안감을 대변하는 것과 동시에,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계기로 작동하는 까닭이다.<sup>40)</sup> 살모넬라나 리케차(rikettsia)와 같은 병원체(病原體)와 질병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었던 시기에는 이처럼 고열과 섬망을 동반하는 병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경 계통과 관련된 열병으로 간주되었다는 점도 생각해야겠다.

박화순의 신경열병이 가장 극도에 달했던 것은 살인 혐의에 대한 미결수로 경성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다. 물론 그의 병증은 작품 초반부터 간헐적으로 나타났으며, 임달성에 대한 살인미수나 고준식에 대한 살해 혐의 등 작중의 중요한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박화순을 고난에 몰아넣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증상이 가장 극단으로 치달아서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까지 진행되는 것은 감옥에서의 일이다. 감옥은 또한 「비봉담」의 전반부를 구성하는 박화순의 과거 술회가 종료되고 현재 시점으로 전

38) 구로이와 루이코의 『와라와노쓰미(妾の罪)』는 버서 클레이의 『저주받은 삶 The Haunted Life』(1887)과 휴 콘웨이의 『어두운 날들 Dark Days』(1884)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각각 저본으로 삼아서 만든 변안소설이다. 최태원, 「변안이라는 난제 - 조중환의 변안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1, 한국현대문학학회, 2017.4, 158면.

39) 박성호, 「변안소설 속 정신질환 양상의 변화와 그 의미 - 조중환의 「비봉담」과 신경열병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60,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20.9, 131-132면.

40)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에서 주인공인 ‘핍(Pip)’은 nervous fever로 인한 섬망을 경험하며, 이는 일종의 예언처럼 활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fever는 누이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매그위치(Magwitch)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Sarah Perry, *A Strange Fever of the Nerves and Blood*, Master's thesis,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2014.1, pp.71-72.

환되는 곳이기도 하다.<sup>41)</sup> 박화순이 유서, 즉 『매일신보』 연재분의 25회 까지에 해당하는 이력을 적어나가는 과정에서 그의 신경열병은 극심해지면서 임달성에 대한 환각을 접하다가 정신을 잃게 된다.

「비봉담」에서는 박화순의 ‘열’ 자체에 대한 서술은 따로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박화순 자신이나 작중의 여러 의사, 판사들이 그의 병명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열병’이라는 술어는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게다가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겪는 섬망은 「쌍옥루」의 정옥조가 보이던 증상과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쌍옥루」에서는 섬어의 형태로 묘사되던 것이 「비봉담」에 이르러서는 화자가 박화순 자신으로 설정됨에 따라 박화순 본인의 독백처럼 취급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독자시여 첩은 유서를 모다 기록지 못하야 점점 신경열병은 더하여지고 림 의스의 형용은 눈압해 왕티한다 쓰기를 맞친 후에 즈쳐히기로 결심하엿스나 그 후에는 엇지되얏는지 썬결갓하야 스스로 몸이 옥중에 잇는식지 전혀 잇고 림 의스와 한가지로 얼골을 더하여 즈로 슈작을 하는 것 갓홀 썬이라<sup>42)</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병(熱病)에 대한 관념이었다. 「쌍옥루」의 정남이나 정옥조, 그리고 「비봉담」의 박화순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각기 다른 병을 앓게 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바로 ‘고열’이다. 특히 정옥조나 박화순은 고열로 인한 섬망 증상을 겪는데,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증상은 작중인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과 직면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정옥조는 이경자와의 결별에 대한 후회와 재결합에 대한 열망을 섬어라는 형태에 기대어 드러내고, 이는 그를 간호하는 이경자에게 목

41) “이상 데일회로부터 데이십오회식지는 그째식지 지닌인 첩의 스정이라 독자시여 이와 갓치 길고 길게 쇼설갓치 기록하야노은 것은 즉 첩의 유서로다 조금이라도 스실을 숨기지 안이하얏스며 보티이지도 안이하얏도다” 조중환, 「비봉담」 25, 1914.8.19.

42) 조중환, 「비봉담」 26, 『매일신보』, 1914.8.20.

격됨으로써 두 인물의 재결합을 이끌어낸다. 박화순은 임달성을 자신의 손으로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끊임없이 그의 환상을 마주하는 섬망 증상을 겪으며, 이로 인한 고난을 겪다가 최종적으로는 경성감옥에서 ‘유서’라는 형태로 자신의 사연과 속내를 털어놓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처럼 열병은 다양한 기전을 둔 채로 ‘고열로 인한 섬망’이라는 유사한 증상을 통해 작중인물의 내면을 고백하게 만들거나 서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을 중심으로 장감에서부터 신경열병에 이르기까지, 혹은 장티푸스에서 nervous fever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질병이 열병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열병의 목적, 즉 ‘typhos’한 상태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증상을 제외한 여타의 요소들은 소거되거나 축소되었다.

#### 4. 장티푸스-열병의 상상력과 소설 속 근대의료의 구체화

장티푸스는 20세기까지도 맹위를 떨친 감염병이었다. 이는 비단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른바 ‘문명국’이라 일컬어졌던 서구 열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만 해도 ‘장티푸스 메리’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별다른 치료제나 예방책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장티푸스는 심각한 감염병으로서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sup>43)</sup>

게다가 식민지 조선에서는 또 다른 맥락도 동시에 작용했다. 장티푸스는 문명과 대조되는 ‘야만’의 징후로 인식되고는 했던 것이다. 1930년대의 일본에서도 도쿄나 기타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다수의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이와 같은 “비문명병”이 “여러 문명국 중 본방과 같이 그 사망률 및 이환율이 고율이며, 거의 개선의 흔적이 없는

43) 정세권, 「전염병의 시대 환자의 경계」, 『환자란 무엇인가』, 모시는사람들, 2023, 102면.

나라는 드물다”고 논평할 정도였다.<sup>44)</sup>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장티푸스는 여러모로 공포와 기괴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소설에서 채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질병이었다. 물론 불량한 위생 상태나 비과학적인 의료 지향에 대한 당대의 세태를 드러내기 위한 관점에서 이와 같은 감염병이 소설의 소재로 채택될 여지는 존재했지만, 이해조의 「구마검」과 같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런 경우를 찾기란 쉽지 않으며, 그나마도 천연두와 같이 근대 이전부터 변별되어온 감염병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다. 상술했듯이 온역 내지는 역역, 즉 ‘역병’이라는 전통적 모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장티푸스나 발진티푸스와 같은 감염병들은 그 정체가 어느 정도 밝혀진 1900년대까지도 문학이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역병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였다.

조중환의 소설이 장티푸스를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별도의 저본을 둔 번안작이라는 점도 적잖이 작용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저본에서는 腸壅扶斯나 イフハス熱을 직접 드러냈고, 조중환은 병명을 제외한 증상 전반을 빠짐없이 번역했다. 다만 병명을 장감이나 열병으로 치환한 것은 아마도 상술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았던 듯하다. 장티푸스라는 병명에 대한 당대 독자들의 인식이 섬어에 기댄 장육조의 고백과 같은 장면과 부합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비봉담」의 신경열병은 차라리 ‘신경’이라는 용어의 급부상과 더불어 신중 병명의 일종으로 수용될 여지가 있었지만, 장티푸스는 이미 그에 대한 인식이나 맥락이 비교적 뚜렷했기 때문이다. 작중에서 묘사한 증상을 해명할 수 있는 병명이라면 굳이 장티푸스라는 명칭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조중환의 소설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장티푸스는 급성 감염병이라는 맥락으로부터 상당부분 동떨어진 것이었다는 점도 생각해

44) 백선례, 앞의 논문, 71면.

야겠다. 「쌍옥루」의 정남이나 정옥조, 혹은 「비봉담」의 박화순이 앓았던 이른바 ‘열병’은 감염병으로서, 혹은 구축되어야 할 아만의 징표로서의 속성은 전혀 포괄하지 않는다. 「쌍옥루」의 경우에는 감염병임을 추론할 수 있는 지표들이 다소 드러나기는 했어도 작중 서사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비봉담」에서는 아예 감염과 관련된 요소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증상 역시 고열과 섬망 등이 주를 이루며, 장티푸스 등의 감염병과 관련된 여타의 증상인 복통이나 설사, 혹은 발진티푸스에서 나타나는 발진 등의 요소는 소거되었다. 물론 신경열병을 내세운 「비봉담」의 경우에는 아예 이런 요소들 자체가 개입될 여지조차도 없었다.

오히려 이러한 묘사는 세균에 의한 감염병이라기보다는 신경열(神經熱)이라는 관점에 더 근접한 것이었다. 장티푸스를 유발하는 병원체인 살모넬라균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장티푸스나 발진티푸스를 비롯하여 고열과 섬망, 착란 등을 유발하는 질병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하는 일은 어려웠다. 이는 오히려 정신적인 이상 상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신경 계통의 질병으로 오인되기 쉬웠다. 장티푸스의 경우에도 고열로 인한 착란 상태로 투신(投身)을 시도하는 사례가 여럿 보고되기도 했는데,<sup>45)</sup> 이는 「쌍옥루」에서 ‘열병’에 걸린 정옥조가 보인 증상이기도 했다.

이는 「비봉담」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저본 기준으로 제시된 神經熱病이나 腸窒扶斯는 전혀 다른 질병일뿐더러, 두 저본 역시 작가나 출판시기 등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쌍옥루」, 「비봉담」을 비롯한 조중환의 번안소설은 1912-1914년 사이에 『매일신보』에서 연일 수록되고 있었으며, 「장한몽」에서의 창작이든 「쌍옥루」나 「비봉담」에서의 번역에 가까운 번안이든 공교롭게도 어떤 형태로든 질병과 그 치유 과정을 등장시켰다. 조중환에 의해 번안된 ‘장감’, ‘열병’은 ‘신경열병’과 나란히 열병이라는 공통분모 하에서 사건의

45) 「精神錯亂の入水 - 熱病の理髮職人」, 『부산일보』, 1915.8.13; 「熱病患者 溺死」, 『매일신보』, 1918.4.16.

전환이나 작중인물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요소로 활용되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가장 부각되는 요소는 바로 ‘열’이었다. 이는 원래 조중환 번안소설 이전의 다른 『매일신보』 연재소설에서는 딱히 두드러지지 않는 증상이었다. 작중인물의 심경이나 처지에 대한 표상으로서 동원된 질병은 대체로 화병이나 신경쇠약과 같은 정신질환 계통에 속한 것들이었고, 그 묘사 역시 수척해진 외모나 기절, 혹은 토혈(吐血)과 같이 외형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증상을 중심으로 구성되고는 했다. 체온계와 같은 구체적인 측정 도구가 부재했던 시대에 오직 촉감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묘사될 수 있었던 열과 달리, 기절이나 토혈과 같은 증상은 그 자체로 작중인물이 놓인 극단적인 상황을 드러낼 수 있는 선명하고도 효과적인 장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91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상황은 적잖은 변화를 겪는다. 병원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의료 시스템이 소설 안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고 병명을 파악하는 식의 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고열은 촉각을 통한 간접적인 묘사로만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열이 무려 40도에 이르러”(「쌍옥루」)와 같이 계측된 숫자의 형태로 지목될 수 있었다.

장티푸스는 이처럼 소설 속 근대의료의 등장과 더불어 열병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로서 채택되었다. 「쌍옥루」에서 정남의 병은 의사들을 통해 진단되며, 병원체 검출을 위해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과정까지 수반된다.<sup>46)</sup> 이러한 혈액검사를 수행하고 혈청주사를 통해서 정남의 장감을 치료했던 것은 이경자의 과거 내연남이자 세균학의 권위자로 묘사되던 서병삼이다. 정옥조의 병은 간호사로서 다년간의 수련을 거쳐서 뛰어난 의료인으로 인정을 받은 이경자의 돌봄을 통해서 완

46) “그렇지 그러면, 곳 정협관과 의문하고, 병자의, 혈액(血液)을 조금 얻어가지고, 내가 그 서박스 집으로 가서, 시험을 하여, 달나고 흐겟소, 서박스다려 감히 와서, 현미경으로, 시험하여달나 흘 슈야 잇소” 조중환, 「쌍옥루 중편」 37, 『매일신보』, 1912.11.12.

화된다.

이는 비단 감염병이라는 전제를 명확하게 드러냈던 「쌍옥루」뿐만은 아니었다. 신경열병을 앞세운 「비봉담」에서 박화순은 과거의 연인이자 경성 감옥병원 의사였던 임달성에게 치료를 받고 이 병으로부터 해방되며, 그 완치 진단 역시 경성감옥병원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sup>47)</sup> 조중환의 변안소설 속 열병은 체온 검사나 현미경을 통한 혈액 검사, 나아가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라는 근대 의료의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었다. 열병은 근대의료와 더불어 소설 내에서 구체화되었으며, 또한 근대의료를 통해서 작중에서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병이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는 고대 그리스의 typhos나 19세기 영문학의 nervous fever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열병의 일종이자, 근대의료의 발견을 통해 정체가 뚜렷해진 감염병의 일종이기도 한 장티푸스가 놓여 있었다.

이런 점은 조중환의 변안소설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던 여성인물의 정신 질환과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장한몽」에서 고도의 급성 멜랑콜리아로 인해 착란 상태에 빠진 심순애가 그 좋은 예다. 증상만 놓고 본다면 심순애의 섬어(謔語)는 「쌍옥루」의 정옥조나 「비봉담」의 박화순이 겪었던 것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심순애의 병은 당대 최상급의 의료기관이었던 조선총독부의원에서도 전혀 대처하지 못하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역시 아무런 효과도 보이지 못한다. 심순애에 대한 의사들의 진단 역시 대부분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진다. 심순애의 치유를 이끌어내는 것은 이수일의 ‘용서’였으며, 반면 의료는 이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

47) “첩은 판스의 압호로 가며 「네 병은 벌써 다 나았스니 직관쇼로 가게 하여줍시오」 판스는 뒤에 사라오는 병원장을 향하여 무엇이라 두어 마디를 헛더니 병원장은 첩의 압호로 오며 「어디 병이 정말 다 나았는가 진찰하여보면 알지」 하고 첩을 다시 자리 위에 누인 후 여러 가지 기계로 주서히 진찰하더니 판스를 향하여 「병은 거의 다 나은 모양이나 아직도 원기가 회복되지 못하여서 그러하니 칠팔일만 지냈으면 아조 완인이 되겄소」 조중환, 「비봉담」 32, 『매일신보』, 1914.8.30.

한다. 이는 「쌍옥루」의 이경자가 앓았던 히스테리-정신병<sup>48)</sup>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의사들의 진단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은 정옥조에게 사생아에 대한 비밀을 고백할 때까지 치유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두 계통의 질병이 작중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했다. 심순애나 이경자가 앓았던 멜랑콜리아나 히스테리, 즉 정신질환 계통의 질병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죄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고백이나 용서의 방식을 통한 속죄를 거치지 않고서는 치료될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이었다.<sup>49)</sup> 이는 신소설의 화병과도 상당부분 맞닿아있는 것으로, 해당 질병을 유발하는 작중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치유 또한 기대할 수 없었다. “침침한 구름 속에 묻혔던 밝은 달 나오듯이 본 정신이 돌아”<sup>50)</sup>온다든가 “신경의 감각기(感覺器)가 즉시 회복되어”<sup>51)</sup> 심경병(心境病)이 낫게 된다는 식의 서술은 질서의 회복이나 남편의 복귀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의료와는 별개로 작동하는 치유의 서사를 구성했다.

그러나 열병은 이러한 맥락과는 다른 층위에서 구성된다. 정옥조나 정남애에게는 이경자나 심순애와 같은 죄의식의 요소가 없으며, 박화순의 경우에는 임달성을 죽게 만들었다는 오해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신경열병에 대한 병력을 지닌 상태였다. 이들의 열병은 작중에서의 갈등을 유발하

48) 「쌍옥루」에서 이경자는 히스테리 진단을 받은 후 그 증상이 악화되어 정신병을 일으킨 것으로 서술된다. 그의 병명은 정신병과 신경쇠약 사이를 오가는데, 이처럼 병명이 하나로 고착되지 않고 비슷한 맥락에 놓인 병명 사이를 오가는 현상은 「장한몽」의 심순애에게서도 비슷하게 관측된다. 작중인물의 병명이 명확하게 고착되는 것은 「쌍옥루」의 장감이나 열병, 혹은 「비봉담」의 신경열병처럼 근대의료에 기반한 진단과 치유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49) 「장한몽」의 심순애는 이수일에게 용서를 받은 후에야 병으로부터 호전되며, 「쌍옥루」의 이경자 역시 사생아에 대한 비밀을 남편인 정옥조에게 털어놓은 뒤에야 병을 앓지 않게 되었다. 두 소설 모두 병원이나 의사를 등장시켜 병을 진단, 치료하게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하나같이 오진(誤診)으로 드러나거나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50) 이인직, 「은세계」, 『한국신소설전집』 1, 을유문화사, 1968, 465면.

51) 최찬식, 「안의성」, 『한국신소설전집』 4, 을유문화사, 1968, 144면.

거나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발병과 치유의 서사가 곧 갈등의 발생과 해소와 동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이들의 열병에 대한 진단과 치유는 의료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갈등이 격화되거나 해소되는 것은 열병 자체의 치유와는 별개로 해당 의료 행위와 연결된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다. 소설에서의 열병은 정신질환과 달리 서사와 의료가 분리된 채로 다루어진다. 심지어는 「비봉담」의 신경열병과 같이 감염병보다 정신질환에 더 근접한 형태의 열병이라고 해도 말이다.

조중환의 변안소설에 나타난 장티푸스는 감염병으로서의 장티푸스와 은유적 질병으로서의 열병 사이에 걸쳐 있었다. 작중 맥락으로서는 서구의 nervous fever와 같은 불명열(不明熱)의 일종이자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열병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체온이나 혈액 검사, 혈청주사와 같은 근대의료의 요소들과 더불어 병원이나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감염병의 특징들을 채택하기도 했다. 장티푸스는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대변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병원체의 발견을 통해 세분화된 감염병으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고열과 섬망을 일으키는 열병을 대변하는 전근대적 의미로서도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5. 정리하며

소설에서 장티푸스의 등장은 근대의료가 소설 내부로 투입하는 양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지점이기도 했다. 장티푸스를 진단하고 대응하는 것 자체가 세균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의료와 위생 제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했지만, ‘열병’이라는 기존의 모호한 질병관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소설에 투입할 여지는 충분했다. 이는 조중환의 변안소설에서 장티푸스가 장감이나 열병으로 변안되거나, 혹은 신경열병

이러는 전혀 다른 계통의 질병과 연결되면서도 고열과 섬망이라는 유사한 증상을 중심으로 묶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열’이라는 요소를 부각시켰다는 데 있었다. 이는 질병을 묘사하는 방식이 기존의 토혈이나 기절 등으로부터 높은 체온으로 옮겨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 열을 측정하고 다스리는 과정에서 근대의료는 소설의 내부로 편입될 수 있었으며, 의료가 질병을 치료한다는 서사 역시 성립될 수 있었다. 여타의 질병, 특히 화병이나 신경쇠약을 주로 다루었던 동시대의 다른 소설들에서 의료는 작중인물의 극단적인 상황을 증언하기 위한 요소로만 활용되었다는 점과 비교한다면 이는 적잖은 차이였다. 의사가 작중인물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병을 해소할 수 있던 것은 열병의 관점에 이르러서야 성립되었던 묘사였다.

그리고 이러한 묘사가 가능했던 것은 열병이 단지 불명열(不明熱)이라는 모호한 영역, 즉 typhos에만 머무르지 않고 typhoid fever나 typhus와 같이 병원체를 통해 식별될 수 있는 감염병의 단계까지 해석되었던 근대의료의 발전상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병원체를 검출해내고, 이에 대응하는 혈청주사를 처방한다든가, 혹은 의사의 치료를 통해 열병을 고친다는 관점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성립되기 힘든 까닭이다.

다만 조중환의 번안소설 내에서 장티푸스란 그저 근대적인 병명으로서 명확하게 분리되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nervous fever와 같은 근대 이전의 열병 개념과도 혼재된 상태로 남아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다. 그리하여 장티푸스는 근대의료가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의 속성을 드러내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열병이 내포했던 은유를 활용하면서 서사의 전환과 갈등의 부침(浮沈)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장티푸스라는 개별의 질병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었다. 장티푸스의 특징적인 증상이자 열병의 은유에서 자주 활용

되었던 고열과 섬망이라는 요소는 결핵과 같은 다른 감염병에서도 활용될 수 있었다. 근대의료가 병리학의 발전과 더불어 병원체를 식별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질병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반면, 문학은 여전히 질병 사이의 느슨한 연결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의미망을 확보해나갔다. 장티푸스라는 똑같은 병명을 채택하면서도 전혀 다른 증상을 묘사하는가 하면, 혹은 결핵과 장티푸스라는 각기 다른 병명을 채택하면서도 동일한 증상으로 수렴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게 된다. 조중환의 번안소설에서 나타나는 장티푸스와 그에 인접한 다양한 ‘열병’들은 이러한 경향을 가늠하는 데 좋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부산일보』  
박진영 편, 『쌍옥루』, 현실문화연구, 2007.  
전광용·백순재·송민호 편, 『한국신소설전집』, 을유문화사, 1969.  
최원식 편, 『이해조 작품집』, 범우, 2022.  
菊池幽芳. 『己が罪 後編』, 春陽堂, 1901.  
瀬戸義直, 『ドストエーフスキイ(近代評伝叢書; 第2巻)』, 中興館書店, 1914.  
品川卯一 編, 『英和会話作文活法』, 昇菴堂, 1899.

2. 논저

- 공혜정 외, 『환자란 무엇인가』, 모시는사람들, 2023.  
권보드래, 「신소설의 성(性), 계급, 국가 - 여성 주인공에 있어 젠더와 정치성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2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12, 7-42면.  
김상진·장석현·정희재 외 2명, 「長感病으로 진단된 불명열 환자 치험 1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8-6, 한의병리학회, 2014.12, 683-688면.  
박성호, 「신소설 속 여성인물의 정신질환 연구 - 화병(火病)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9,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20.5, 169-199면.  
박성호, 「변안소설 속 정신질환 양상의 변화와 그 의미 - 조중환의 「비봉담」과 신경열병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60,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20.9, 127-156면.  
박진영, 「1910년대 변안소설과 ‘실패한 연애’의 시대 - 일제 조중환의 쌍옥루와 장한몽」,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8, 273-302면.  
배대호, 「19세기 전후 사대부가의 감염병 양상과 대처 - 정원용의 『경산일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95, 조선시대사학회, 2020.12, 279-311면.  
백선례, 「식민지 시기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관한 의학적 논의의 전개」, 『연세의사학』 23-2,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2020.12, 63-83면.  
서연주, 「신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광기」, 『여성문학연구』 3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4, 40-60면.  
송명진, 「이식된 ‘광기’와 소설적 형상화 - 191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2-4, 대중서사학회, 2016.11, 87-114면.

- 이지훈, 「조중환의 『비봉담』 변안과 여행의 서사 형식」, 『한국근대문학연구』 18-1, 한국근대문학회, 2017.4, 37-71면.
- 장근호·최규진, 「신소설에 비친 개화기 의료의 모습」, 『역사연구』 35, 역사학연구소, 2018.12, 109-143면.
- 정희영, 「장티푸스의 몇 가지 문제」, 『인제의학』 5-2, 백중앙의료원, 1984.6. 133-142면.
- 최규진, 『이 약 한번 잡춰 봐 - 식민지 약 광고와 신체정치』, 서해문집, 2021.
- 최태원, 「변안이라는 난제 - 조중환의 변안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1, 한국현대문학회, 2017.4, 143-164면.
- 安井広, 「E・ペ/レヅと発疹チフス」, 『日本医史学雑誌』 28-3, 日本医史学会, 1982.7, 307-316面.
- Perry, Sarah, A Strange Fever of the Nerves and Blood, Master's thesis,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2014.1.
- Sontag, Susan, 『은유로서의 질병』, 이재원 역, 도서출판 이후, 2002.

<Abstract>

Jo Jung-hwan's Adapted Novels  
and the Imagination of Fever  
- Focusing on the Variation and Shape of Typhoid

Park, Sungho

Typhoid fever was a rampant infectious disease until the mid-20th century, experiencing several outbreaks in Korea. Since the late 19th century, responses centered around hygiene and quarantine were implemented, and it wa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major infectious diseases among the public.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where typhoid fever directly appears in literary works. Unlike neurasthenia, tuberculosis, or smallpox, typhoid fever was almost never mentioned in novels until the early 1910s. It was not until Jo Jung-hwan's adapted novels, such as "Ssangokru" and "Bibongdam," that typhoid fever finally made an appearance, albeit not adopting the disease name directly.

In Jo Jung-hwan's adapted novels, typhoid fever appears more as a part of an unknown fever than from the aspect of an infectious disease. Although there are descriptions that allow readers to infer it as an infectious disease, psychological factors like the characters' guilt play a strong role at the outbreak's center. This is connected to the neural fever adopted in 19th-century English and American novels, where fever is central to explaining conflicts within the story or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resolution.

On the other hand, these novels also provided an opportunity to

formally introduce modern medicine into the story, centered around fever. Diagnosis and treatment focused on blood tests, serum injections, and temperature measurements are all conducted by doctors and medical institutions, separating the act of curing the characters' diseases as the doctors' role. Considering that neurasthenia, appearing in novels from the same period, is healed through the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characters independently of medical intervention, the imagination of fever centered around typhoid fever plays a significant role in concretizing modern medicine in literature.

Furthermore, it is worth noting that fever, centered around typhoid, creates connections with other diseases such as tuberculosis and neurasthenia. This offers another perspective in examining how diseases were recognized and visualized in early 20th-century literature.

Key words: Typhoid, Fever, Jo Jung-hwan, Adapted Novels, Modern Medicine, Infectious Disease, Neurasthenia, Ssangokru, Bibongdam

투 고 일: 2024년 2월 24일

심 사 일: 2024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12일

수정마감일: 2024년 3월 25일